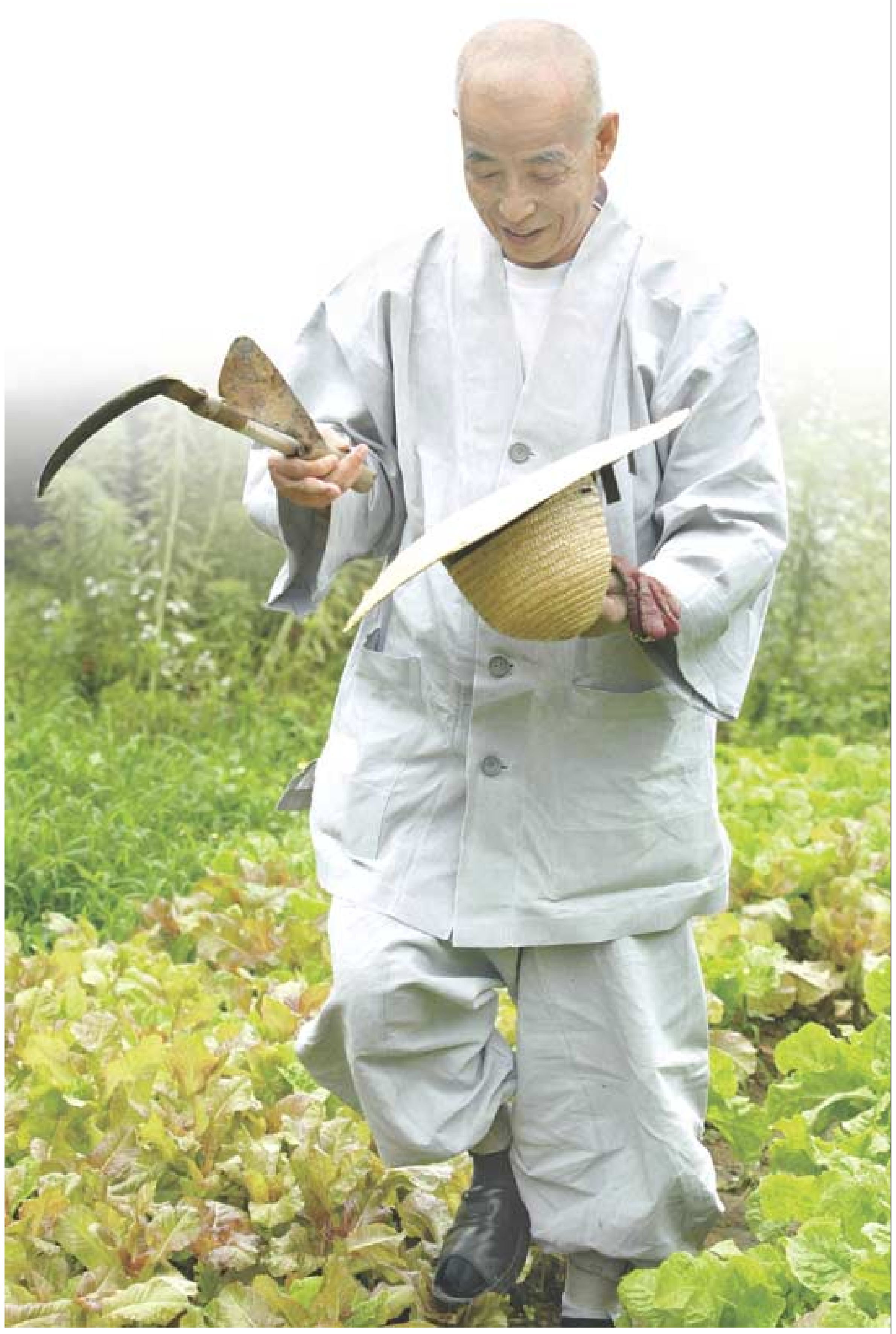
"원칙 지키면 행복해져요"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월운 스님 (서울 보문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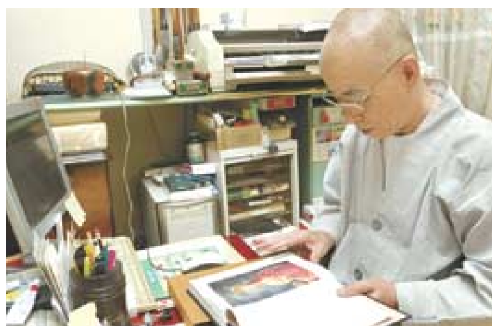


농부가 농사를 게을리하면 수확할 것이 없듯이 출가자가 수행을 게을리하면 풍요로운 마음밭을 가꿀 수 없다는 월운 스님이 보문사 법당 뒤에 있는 텃밭에서 울력을 하고 있다.

태풍이 몰려옴을 예고라도 하듯 짙은 먹구름이 가득한 7월 6일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삼각산 기슭에 위치한 보문사를 찾았다. 날씨는 잔뜩 찌푸렸지만 인근 계곡의 물은 물대로 멀리 보이는 산은 산대로 맑고 선명했다. 주지실에서 기자를 맞은 보문사 주지이자 태고종 사정원장 월운 스님은 고희가 넘은 나이에도 인터넷 서핑에 여념이 없었다.

예상을 깬 뜻밖의 광경에 놀랐다. "스님, 인터넷 잘 하세요?" 문안 인사를 올리기 전 저절로 튀어나온 질문에 월운 스님은 "인터넷이란 놈이 참 희한해.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려주는지 말이야. 각종 정보나 법문 자료를 이 놈을 통해 많이 얻어. 나한텐 둘도 없는 친구지"하고 너털웃음을 짓는다.

월운 스님은 이렇듯 다양한 법문 자료를 찾기위해 인터넷으로 세상을 만난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스님 나름대로의 신세대식 공부법이다.



인터넷을 통해 법문자료를 챙기는 월운 스님.

그러나 수행 생활만큼은 철저하게 옛 스님들에게서 배운대로 원칙을 고수한다. 월운 스님은 50여년을 한결 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스님의 일과는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예불로 채워진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신도들과 함께 매일 오전 5시에 예불 올리기로 약속한 것을 거른적이 거의 없다. 예불 봉행 후 간단한 체조 그리고 아침 공양을 끝내면 인터넷으로 종무행정과 사찰 업무를 시작한다.

고희 나이에도 매일 예불 거르지 않아
인터넷 활용 신세대 맞는 법문 준비
'폭넓은 공부' 강조…엄격한 상좌교육

보문사에 혼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나 신도관리, 울력 등 모든 것을 스님이 도맡아 하고 있다. 상좌들은 모두 지방에서 공부하거나 각자 사찰 주지를 맡고 있어 스님이 혼자 절을 지키고 있다. 손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과를 보내는 스님은 그래도 반드시 저녁 예불 후에는 2~3시간씩 정진한다.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며, 때로는 법문집도 집필한다. 지난 6월에는 고희 기념 법문집 <월인천강>을 출간하기도 했다. "잠들기 전 하는 수행이 곧 내 하루 농사의 결실인 셈이지. 농부의 농사가 곡식 잘 키우는 것이듯 출가 수행자의 농사는 바로 수행이지요. 농부가 농사를 게을리 하면 수확할 게 없듯이 출가자가 수행을 게을리 하면 풍요로운 마음밭을 가꿀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진에 게으르면 수행자가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불자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범종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월운 스님. 스님은 불교가 사람들에게 어렵게 인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교육에 있다고 지적한다. "스님들이 책이 모자라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공부를 안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은사인 화봉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엄격하기로 소문나 있다.

"요즘은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롭다 보니 오히려 정신이 나태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쉽게 신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선 제자들부터 경전 공부를 충실히 해야만 된다고 독려합니다. 본인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쉽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공부를 용맹스럽고 폭넓게 해야 신심도 솟구치는 법입니다."

스님의 이런 철저한 교육 철학은 제자를 받을때마다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 초발심때부터 철저하고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자를 길러내는 초석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이다.

이렇듯 자신에게나 제자들에게 수행자로서 엄격한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나는 출가생활에 늘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출가자의 기쁨은 가진 게 많은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빠듯한 절살림에 늘 부족하게 살지만 행복하고 즐거워요.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면이 풍부해지고 저절로 생활이 충만해지며 행복감이 넘쳐요. 행복은 절대로 부자순이 아닙니다."

스님은 불교를 통해서 얻어진 이런 행복들을 많은 이들에게 항상 나눠주고 싶어한다. 특히 불교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찾아다니는 일에 열심이다. 형편이 어려운 불우가정과 무의탁 노인, 군부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간다. 불교가 사람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스님은 특히 97년부터 육군 60사단 사령부내 호국 용주사에 한 달에 두 번씩 나가 노구를 이끌고 손자뻘 되는 장병들에게 법문을 한다. 스님이 인터넷에 유독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군포교 때문이다. "초창기에 군장병들에게 법문할 때 영험설화, 경전 법문, 비유법문 등 내 불교지식을 총동원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지루한지 법문 시작해 얼마안돼서 모두 졸고 있더라구요.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신세대 장병들이 좋아하는 인터넷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월운 스님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포교든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스님은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한 장병에게라도 더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군포교에 매진할 생각이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월운정사 창건, 불교반야병원 설립

월운 스님은 | 1936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월운 스님은 58년 합천 해인사에서 화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78년 서울 안암동에 월운정사를 창건했으며, 80년에는 서울 상봉동에 태고종 산하 불교반야병원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태고종 교무부장, 한국불교신문사 사장, 태고종 제도개혁 상임위원, 태고종 중앙 호법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이래 현재 태고종 사정원장과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보문사 주지를 맡고 있다.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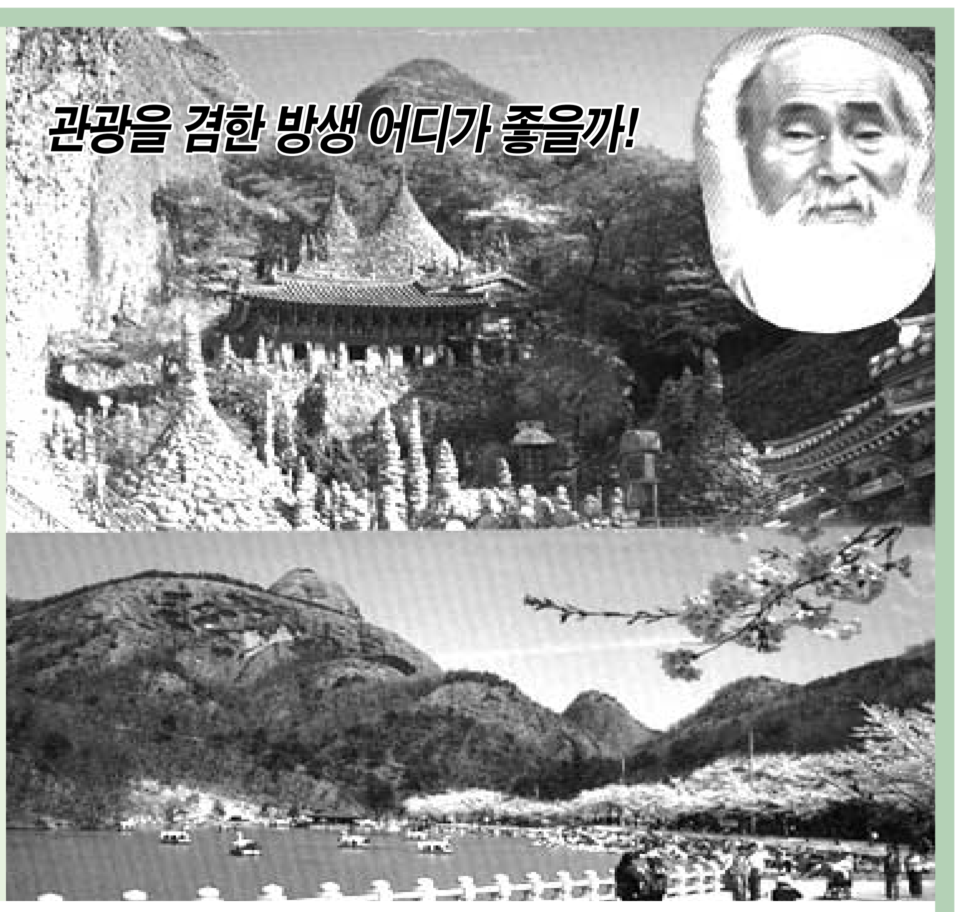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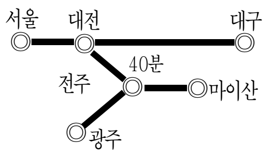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